

김유정 소설의 반개인주의 미학

진영복*

1. 김유정 소설의 대중성과 아나키즘
2. 관계론적 시선과 근대 개인주의 비판
3. 반개인주의적 사회원리와 '위대한 사랑'
4. 결론

국문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김유정 소설 미학과 반개인주의 사상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데 있다. 김유정의 소설은 순수주관과 순수객체를 분리하는 이성주의에 거리를 둔다. 그 대신에 관계론적 시선에서 이야기를 진행한다. 김유정 소설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나'가 구성되며,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수용하는 타자성을 띤다.

근대자본주의 핵심원리인 개인주의는 경쟁을 원리로 삼아 자연과 사회를 지배한다. 이러한 개인주의가 협력의 공동체를 파괴한다. 김유정은 크로포트킨의 이론을 수용하고, 협력을 원리로 삼는 공동체를 소망한다. 김유정은 공동체의 원리로 '위대한 사랑'을 주장한다. '위대한 사랑'은 경쟁과 지배를 부정하고 사랑과 자유를 옹호하는 원리이다. 김유정 소설은 이 '위대한 사랑'을 탐색해 가는 길을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는 김유정 소설의 대중성이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를 결합한 형식인 아나키즘과 관련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김유정

*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부교수.

소설이 자본주의적 개인주의와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에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주제어: 김유정, 사회원리, 대중성, 크로포트킨, 위대한 사랑, 관계론적 시선, 반개인주의, 공동체)

1. 김유정 소설의 대중성과 아니키즘

김유정 소설은 대중적이다. 대중의 감정구조와 인식에 근거하여 독자에게 쉽게 다가간다. 소외된 자들의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독자의 공감을 얻고, 독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윤리성을 환기한다. 김유정 소설은 대중의 평범함을 소설 미학으로 삼고 있다. <취미문답>¹⁾이라는 설문에서도, 김유정은 육자배기 같은 레코드는 자다 들어도 싫지 않으며 일상 옷도 독자대중들처럼 조선옷을 입는다고 답한다. 게다가 조선 문단의 문학 중에서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홍길동전을 꼽는다. 이런 언급에서도 보듯이 김유정은 대중의 감각과 공유하며 그들의 감정구조에 친화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김유정의 감각은 소설을 창작하는 목표와 연관되어 있다. 즉 그의 소설의 대중성은 대중들의 삶에 대한 애착에서 나온 것이다. 김유정 소설의 주인공은 부랑자, 유랑민, 소작농민, 카페여급, 도시노동자, 룬펜지식인 등 주변부의 인물이다. 김유정 소설은 소외된 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비루한 욕망을 이해한다. 이들을 통해 모든 존재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권리를 옹호하고 소외된 타자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불러온다.

1) 김유정, <취미문답>, 전신재 편, 『원본 김유정전집』, 강, 2007, 480-485쪽. 이하 김유정 작품 인용 시, 현대어 표기에 준하여 띄어쓰기를 한다.

그런데 김유정 소설이 사소한 이야기 속에서 평범한 진실을 포착하여 대중성을 확보하지만, 복잡한 세계에 협소한 정신으로 대응하는 인물들 뿐이어서 세계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예컨대 김유정 소설의 대중성의 특성을 근대 이전의 ‘자연성’이나 ‘원초적 순박성’, ‘원색의 토속성’²⁾ 등의 수사로 접근할 경우, 김유정의 소설 인물들은 선량하지만 근대 자본주의적 세계에 대해 무력한 존재로 간주되기 십상이다. 심지어 이 무력함은 근대적인 삶의 원리를 체화하지 못한 탓이기에 ‘자연의 인간적 전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³⁾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김유정 소설의 대중성은 도시 근대인에게 위안을 건네는 노스텔지어적인 판타지만을 제공하는 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김유정 소설이 지닌 ‘지금 여기’의 전체성이 환기하는 대중적 울림을 놓치는 것이다.

분명 김유정 소설에는 인식론적 분석적 사유가 작품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김유정 소설을 대하는 독자는 텍스트와 지적 대결을 준

2)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자연성’과 ‘향토’에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신동욱, 『김유정론』, 『현대문학』 169호, 1969.1; 임현영, 『김유정론』, 『창조』, 1972.4; 김영기, 『농민문학론』, 『현대문학』 19호, 1973.10; 김병익, 『땅을 잃어버린 시대의 언어』, 『문학사상』 22호, 문학사상사, 1974; 김우중, 『한국현대소설사』, 1974; 이주일, 『유정문학의 향토성과 해학성』, 『국어국문학』 83권, 국어국문학회, 1980; 구인환, 『김유정 소설의 미학』, 『국문학논문』, 민중서관, 1977; 윤지관, 『민중의 삶과 시적 리얼리즘 김유정론』, 『세계의 문학』, 1988. 여름호; 한만수, 『한국서사문학의 바보인물 연구-바보 민담, 판소리계 소설, 김유정 소설을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2; 전상국, 『김유정 소설의 언어와 문체』, 『김유정 문학의 전통성과 근대성』, 한림대 아시아문학연구소, 1994; 권채린, 『한국 근대문학의 자연 표상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10; 이현주, 『김유정 농촌소설에 나타난 “향토” 표상』, 『시학과 언어학』 31권, 2015; 송효섭, 『김유정 「산골」의 공간수사학』,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1집, 2013.12; 박상준, 『반전과 통찰-김유정 도시 배경 소설의 비의』, 『현대문학의 연구』 53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이진송, 『김유정 소설의 장소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15.

3) 박현호, 『한국인의 애독 소설 향토적 서정소설의 미학』, 책세상, 2001, 100-102쪽.

비하거나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김유정 소설 미학에서는 이성, 계몽, 이론화, 세계관, 사회철학 등의 분석적 사고⁴⁾를 소설 표면에 드러내지 않고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시대적 전체성을 환기하는 서사 전략을 편다. 이에 따라 독자가 그의 소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김유정 소설은 풍자와 해학으로 삶의 무거운 진실을 가볍게 보이게 하는 카니발적인 유쾌함으로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다. 김유정 소설의 인물들은 평범하거나 하층의 사람들로 복잡한 내면을 고백하지도 않고, 상황과 사회에 대한 치밀한 논리적 설명도 가하지 않는다. 간혹 지적 수준이 있는 인물이 등장해도 그는 한없이 무기력한 인물로 실존의 양태를 감각적으로 보여줄 뿐이다. 따라서 평범한 인물들의 소외된 이야기를 객관화된 풍경처럼 지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독자는 자신과 인물을 분리하지만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자기와 관계되어 있다는 윤리성을 깨닫고 소설의 평면적인 이야기 속에 자신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공감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바보형의 인물이 등장하여도 독자는 작중 인물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지 못한다. 독자는 인물의 실존에 공감하고 타자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며 ‘지금 여기’의 전체성을 의식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김유정 소설에는 인식적, 분석적 사고가 작품 표면에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김유정 문학의 사회사상을 탐구하려는 문체적 연구가 끊임없이 시도되어 왔다. 먼저 하정일은 김유정 소설을 사회주의 문학 계열의 하나로 정립하려는 연구를 행한 바 있고⁵⁾, 방민호는

4) 메를로 폰티는 문학에서 분석적인 사고가 그 자체로 죽은 문자와 다름없는 작품들과 그것에 자유롭게 의미를 부여하는 개인들을 다룰 뿐이라며 부정적으로 본다. 분석적인 사고는 한순간에서 다른 순간으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하나의 전망에서 다른 전망으로 이동하는 지각적인 전이를 깨뜨린다는 것이다. 모리스 메를로 폰티, 『간접적인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 김화자 역, 책세상, 2005, 72쪽.

김유정과 크로포트킨과의 연관성을 제기하였고⁶⁾, 서동수는 김유정의 유토피아 공동체를 아나키즘과 관련하여 살필 수 있는 근거를 고찰하였다.⁷⁾ 홍기돈은 김유정 소설의 원시적 인물에 나타난 아나키즘적 흔적을 연구한 바 있다.⁸⁾ 이러한 연구가 지닌 어려움은 김유정의 문학 활동 시기가 짧아 자신의 문학사상이나 미학을 충분히 문자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따라서 단편적인 근거에 의지해서 해석과 추론을 통해 논증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또한 아나키즘 자체가 직접 행동을 선호하고 체계와 이론을 억압적 권위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체계화된 이론적 근거가 적다는 점에서도 기인한다. 결국, 비체계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산재된 아나키즘적 요소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관련성을 연결하고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방법만이 가능한 것이다.⁹⁾

김유정 문학에 나타난 반개인주의적 성격은 사회화된 개인주의이다. 이는 촘스키가 아나키즘을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합류점”¹⁰⁾으로, 폴 에브리치가 리버테리안(libertarian) 아나키즘이라는 명명한 것과 유사한

5) 하정일, 『한국문학의 로컬리티와 지정학적 상상력: 지역, 내부 디아스포라, 사회주의적 상상력-김유정 문학에 관한 세 개의 단상(斷想)』, 『민족문학사연구』 47권,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105쪽.

6) 방민호, 『김유정, 이상, 크로포트킨』, 『한국현대문학연구』 44집, 한국현대문학회, 2014.12, 296-298쪽.

7) 서동수, 『김유정 문학의 유토피아 공동체와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 『스토리엔 이미지텔링』 9호, 건국대학교 스토리엔이미지텔링연구소, 2015, 109쪽.

8) 홍기돈, 『김유정 소설의 아나키즘 면모 연구-원시적 인물 유형과 들병이 등장 작품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70집, 중앙어문학회, 2017, 348-353쪽.

9) 김유정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박경리 문학과 아나키즘과의 연관성을 논의한 연구도 있다. 한점돌, 『박경리 문학사상 연구(시장과 전장)과 아나키즘』, 『현대소설연구』 42호, 2009, 563-598쪽. 이 논문은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이 개인주의와 전체주의를 극복하려는 문학 사상에 위치해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김유정의 문학 사상과도 공유되는 면모가 있다.

10) 노암 촘스키, 『촘스키의 아나키즘』, 이정아 역, 해토, 2007, 58쪽.

의미이다.¹¹⁾ 즉 반개인주의=사회화된 개인주의는, 자본주의 근대 체제는 그대로 두고 개인의 해방이나 자유를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 구별하고 전위와 당을 중심으로 노동자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사회주의’와도 구별되는 개념이다. 김유정의 반개인주의 미학은 개인과 공동체가 자율성을 발휘하여 사회 연대와 협력 안에서 개인과 사회의 해방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김유정 소설의 반개인주의는 모든 억압적 권위와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근대 이성에 근거한 산업화에도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고 근대국민 국가가 지닌 권위적 지배와 전쟁국가적 성격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이 글에서는 김유정 소설의 대중성이 반개인주의적 미학과 사상에서 나온 것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김유정의 반개인주의적 사상을 리버테리안 아나키즘과 겹쳐 읽으며 반개인주의 사상을 이해하고, 이것을 소설 미학의 원리로 어떻게 구축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김유정 소설이 탐색해가는 새로운 사회원리로서 ‘위대한 사랑’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김유정 소설이 추구한 대중성의 의미가 규명될 것이다.

2. 관계론적 시선과 근대 개인주의 비판

김유정 소설의 대중성은 주변부의 소외된 인물들에 주목하여 대중의 감정구조와 인식을 파고드는 평범성의 미학에서 나온다. 대중들에게 애착을 보인다고 해서 김유정 소설은 나는 너가 아니며,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는 입장에서 소외된 인물들을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보는 자는 대상을 배열하고 조직함으로써 지배하고자 하거나 타자를 자

11) 폴 에브리치도 아나키즘에서 자유주의적 속성을 주요한 가치로 강조한다. 폴 에브리치, 『아나키스트 초상』, 하승우 역, 갈무리, 2004, 29-33쪽.

아로 환원시키려 한다. 그런데 김유정의 소설은 누구의 시선도 특권화하지 않고 평등하고 겸허한 시선으로 인간관계와 세계를 바라본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시선을 교차함으로써 보는 자의 일방적인 시선의 권력을 해체한다. 평등하고 겸허한 시선으로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남을 바라보듯 타자와 자기의 관계를 바라본다. 심지어 〈생의 伴侶〉에서 보듯이, 자기를 주제화하는 소설에서도 ‘경험하는 나’와 ‘서술하는 나의 분리’를 통해 성찰의 시각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를 친구의 눈을 통해 이야기하게 하여 한 번 더 자기를 타자화한다. 〈따라지〉에서도 주변 인물의 관찰에 의해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바라본다. 즉 자아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타자로 하여금 구성되고 규정되는 관계에 있다는 타자 철학을 드러내는 소설 기법을 구사한다. 인식하고 말하는 자의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방식인 셈이다.

〈따라지〉는 카메라의 시점에서 사직동 집을 비추면서 시작한다. 카메라라는 주인마누라를 발견하고 곧 시점이 바뀌어 주인마누라의 눈과 목소리로 다른 등장인물이 소개된다. 방세를 받으려는 주인마누라는 누님과 함께 사는 우거지상의 방문을 열고, 버스걸 딸을 둔, 병에 걸린 노란 낫짱의 노랑통이 영감을 만나고, 난봉질에 향수만 찾는 걸 보니 아무리 잘 봐도 씨알이 사람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아끼꼬의 방문을 연다. 그러나 이들에게 방세 받는 것에 모두 실패한다. 늦잠에서 깬 아끼꼬가 카메라 렌즈를 이어받아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아끼고는 네 활개를 꼬 벌리고 아끼고 답게 무사태평히 코를 골아올린다.
 젓통이를 풀어헤친 채 부끄럼 없고, 두 다리는 이불 째 우로 번쩍 들어올렸다.
 담배연기 가득 찬 방안에는 분내가 획 끼치고
 “이봐! 아끼꼬! 자?”
 이번에는 대문 밖에서도 잘 들릴 만큼 목청을 돋웠다. 그러나 생시에도 대답

없는 아끼꼬가 꿈속에서 대답할리 없음을 알았다. 그저 겨우 입속으로

“망할 계집애두, 가랑머릴 짝 벌기고 저게 온-째제”

미달이가 딱 닫겨지는 서슬에 문틀 우의 안약 병이 떨어진다.

그제야 아끼고는 조심히 눈을 떠보고 일어나 앉았다. 망할 년 저 보구 누가 보랏나, 하고 한옆에 놓인 손거울을 집어든다. 어젯밤 잠을 설친 바람에 얼굴이 부서부석하였다.¹²⁾

아끼꼬는 ‘밤손님’이 있으면 한 사람은 나가 자야 하는 약속으로 영애가 어젯밤 나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아 걱정한다. 아끼꼬의 회상이 길게 이어진다. 아끼꼬의 눈으로 관찰된 톨스토이와 누님의 모습. 영애는 톨스토이가 너무 병신스럽다고 골을 내지만, 아끼꼬는 사람이 너무 착해서 그렇다고 주장한다. 아끼꼬는 버스걸이 벤또 하나만 차면 공장의 계집애나 버스걸이라고 알까 보아 현 무거운 잡지책을 넣어 책보처럼 위장하여 다니는 것을 알고 있다. 영애는 딸에게 구리칙칙이 구는 버스걸의 아버지가 개만도 못하다고 험담하지만 이들의 대화 속에서 영애 아버지가 영애를 팔아먹은 상처가 있음이 드러난다. 아끼꼬가 문틈으로 바라본 안채에서는 실랑이가 벌어진다. 주인마누라와 조카가 합심해서 톨스토이에게 방을 빼라며 가구와 살림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부당한 처사에 아끼꼬와 김마까 영감이 다툼에 개입하고 큰 소동으로 번진다. 주인마누라는 싸움이 커지자 순사를 불러오지만 집안은 이미 싸움을 그치고 평온을 되찾은 뒤였다. 순사는 쓸데없는 일에 자신을 불렀다고 주인마누라를 타박하고 싸움을 일으킨 아끼꼬를 데리고 파출소로 향하지만, 이러한 비루한 일상을 감싸듯 사직골은 봄의 화창함으로 나른하다.

〈따라지〉는 서로가 서로를 보고/보이는 관계로 구성된다. 예컨대 〈따라지〉의 중심 서사축이자 갈등축인 주인마누라와 아끼꼬는 한 집에 사

12) 김유정, 〈따라지〉, 전신재 편, 『원본 김유정전집』, 강, 2007, 306쪽.

는 사람들을 감각적으로 호명한다. 즉 아끼꼬는 주인마누라를 늙은 구렁이로 명명한다. 주인마누라가 우거지상이라고 명명하는 사람을 아끼꼬는 톨스토이라고 부르고, 주인마누라가 노랑통이라고 명명한 영감을 김마까라고 부른다. 각자의 가치 기준과 자신과의 관계에 따라 상대를 규정하여 인물성격의 다양성을 드러낸다. 동일한 인물을 톨스토이와 우거지상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물에 대한 가치 기준이 상대적이고 관계론적임을 드러낸다.

이처럼 〈따라지〉는 중심적인 화자가 등장하여 이야기를 통제하지 않고 자기의 이야기가 타자들의 눈으로 파악되고 전달되는 간접화된 서사 방식을 구사한다. 나는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내가 보이는 시선의 가역성이 성립한다. 내가 나를 설명, 소개, 분석하지 않는다. 인물들은 다른 사람의 봄을 통해 내가 성립하는 관계론적 위치에 있다. 보고 있는 것과 동시에 나는 보이고 있으므로 보는 자가 갖게 마련인 시선의 권력은 성립하지 않는다. 타자는 나와 더불어 공동의 존재에 참여하되 이질성과 외재성으로 남아 있다. 시선의 가역성을 통해 이질의 타자가 발견되고 이를 통해 다양성과 다수성이 열린 것이다.

〈따라지〉는 감각과 침묵의 언어로서 소외된 자의 평범한 진실에 깊이와 다양성을 부여한다. 내면을 보여주지 않으나 행동과 표정, 대화, 사소한 사건, 상황에서 그들의 처지와 성격을 보여준다. 명시적인 개념이나 분석적인 언어로 규정된 의미를 제공하지 않는다. 톨스토이 역시 자신의 모습이 보여질 뿐 자신의 입장을 말하지 않는다. 독자는 비루한 실존 속에서 발화되는 파롤과 그것이 에워싸고 있는 침묵의 언어를 동시에 읽어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침묵의 언어이니 만큼 의미는 완성되어 있지 않고 개방되어 있다. 이 개방성 속으로 타자의 언어, 시선이 들어온다. 나는 너의 언어로 너에게 말하고, 나의 말로 너를 이해하는¹³⁾

관계의 미학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따라지〉에는 상징적 연속체를 구성하는 질서정연한 원근법이 없다. 사물과 사태는 단정한 분별력을 지니지 않은 채 모호한 상태, 즉 열린 상태로 존재한다. 이들이 보여주는 사태는 비루하기 그지없다.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주인마누라 장독 위에 오줌을 깔길 거라고 아끼꼬가 결심하는 것으로 소설은 끝난다. 요컨대 비루한 일상과 갈등의 반복, 그리고 사소한 복수로 마감한다. 다만 원경으로 처리된 결말은 인물들의 실존을 간접화하고, 봄기운은 침묵의 목소리로 독자에게 말을 걸어온다. 사직동의 화창한 봄기운의 여백에 삶의 고통의 무게를 위로하고 공감해 주는 타자의 언어와 시선들이 투입한다. 우월한 사람의 사유나 행동으로 이야기가 중심화되지 않은 채 뿌리 뽑힌 대중들의 각자의 개성과 처지 그대로 삶이 드러나고, 그들의 삶에 기반한 정의와 분노의 감각이 폭발하여 카니발적인 한 장면을 연출한다. 법적 권리도 없이 이윤을 앞세워 임차인의 정주권을 박탈하려는 주인마누라의 처사는 용인될 수 없는 비윤리적이라는 공통감각이 이들 사이에 형성된 것이다.

모든 존재자가 동등한 권리와 삶의 정당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근대 코기토 사유에 거리를 두고 보고 보이는 관계론적 시선을 채택한다. 코기토가 갖게 마련인 인식론적 특권과 우월의식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김유정의 관계론적인 미학은 근대의 핵심원리인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것이다. 개인주의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능력주의 사회를 만들고 개인을 독립시킨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는 경쟁에 패한 자에게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경쟁이 활성화되어 사회가 발전한다고 믿고 승자독식을 정당화하는 사유를 만들어낸다. 즉, 개인주

13) 미우라 노부타카·가스야 게이스케 엮음, 『언어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이연숙·고영진·조태린 역, 돌베개, 2005, 31쪽.

의는 우월론적 특권의식과 경쟁을 통해 자연 지배와 사회 지배의 권력을 생성하고, 이것이 극대화될 경우 공동체의 정의를 제한한다. 김유정의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은 욕망주체로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상호부조의 공동체의 모습을 소망하는 것과 맞물린다.

이를 수필 〈病床의 생각〉에서 살펴볼 수 있다. 〈病床의 생각〉은 김유정이 사망하기 2개월 전에 쓴 것으로 김유정의 예술철학과 사회철학이 담겨 있다. 이 글에서 김유정은 근대 이성과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나 있다.

한동안 그렇게도 소란히 판을 잡았던 개인주의(個人主義)는 니체의 초인설(超人說) 마르사스의 인구론(人口論)과 더불어 머지 않아 암장(暗葬)될 날이 올 겁니다. 그보다는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相互扶助論)이나 맑스의 자본론(資本論)이 훨씬 새로운 운명(運命)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¹⁴⁾

멜서스는 인구 폭발로 식량이 부족해지고 능력 없는 하층민의 자녀수가 더 많아져 사회 경쟁력을 잠식하므로 생존경쟁에서 이기고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게 하는 것이 사회와 국가 발전에 더 낫다는 사회적 담론을 펼친다. 이러한 멜서스의 인구론은 경쟁이 종의 생존에 유리하다는 다윈의 진화론으로 이어진다. 멜서스주의의 영향력은 영국 정치로 확대되어 빈자법에 의해 행해지던 빈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게 하였다. 즉, 멜서스는 선택과 도태, 경쟁이 사회발전을 가져온다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개인주의는 경쟁을 원리로 하여 지배를 정당화하는 속성을 지닌다. 그런데 더 이상의 언급이 있지 않아 어떤 문맥에서 김유정이 니체에 거리를 두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니체의 초인론은 삶의 능동성

14) 김유정, 〈病床의 생각〉, 전신재 편, 『원본 김유정전집』, 강, 2007, 471쪽.

과 자유로운 삶을 제약하는 선악의 기준이나 도덕규범을 파괴하라는 주장이어서 자유로운 삶을 지향하는 김유정에게도 수용 가능한 철학인데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김유정은, 니체를 순수한 개인주의의 아나키즘으로 규정하고 이것의 한계를 규정한 크로포트킨의 논리와 같은 입장에서 있는 듯하다. 크로포트킨은 슈티르너를 ‘순개인주의자’로 규정하고 예술적 성취가 높은 니체가 이 경향을 이어받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크로포트킨은 “이 개인의 확립이란 것은 형이상학적이어서 실생활에서 거리가 멀”고, “또한 그것은 일체의 해방의 기초를 이루는 평등의 감정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끌어 간다.”¹⁵⁾고 비판한다. 크로포트킨은 니체의 초인과 같은 우월성의 원리가 지배의 정당성을 낳고, 이것이 일상 권력을 산출한다고 보고 비판하는 것이다. 크로포트킨은 “남을 지배하려고 욕망하면서 자기를 해방할 수는 없”으며, “개인주의자라 자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귀족, 승려, 부르주아, 관료 등 그들 자신을 대중보다 ‘우월한’ 자라고 자부하는 소수자에게 접근케 하며, 국가, 교회, 법률, 경찰, 군부 기타의 오랜 세월에 걸친 온갖 압제는 다른 아닌 그들 특권적 소수자의 존재에 기인”¹⁶⁾한다고 주장한다. 경쟁, 우월성, 권위주의는 지배를 정당화하는 기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력과 지배를 해체하려는 아나키즘은 과학적인 합리적 이성보다는 대중의 본능과 연대에 의지한다.

분명, 니체가 구사한 강자와 약자라는 은유는 본의와 다른 오해의 여지를 제공한다. 니체는 초인인 강자가 지배하는 사회는 고상한 사회가 될 것이지만, 대중들의 민주주의는 사회를 범속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15) P.A. 크로포트킨, 『현대과학과 아나키즘: 아나키즘의 도덕』, 이을규 역, 창문각, 1973, 111-112쪽.

16) P.A. 크로포트킨, 『현대과학과 아나키즘: 아나키즘의 도덕』, 이을규 역, 창문각, 1973, 111-112쪽.

주장했는데, 이러한 강자론은 현실에서 침략이데올로기로 동원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는 나치가 행한 니체 변용의 역사에서 볼 수 있다.¹⁷⁾ 니체의 초인론은 약자에 대한 강자의 지배를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김유정은 이에 거리를 두는 듯 보인다. 따라서 김유정이 보기에 근대원리의 핵심 원리인 개인주의는 경쟁, 우월의식, 적자생존의 원리에서 있고, 이는 일상의 차별적인 권력을 생성하는 기제인 것이다.

〈病床의 생각〉에서는 연애를 위한 연애, 과학을 위한 과학, 예술을 위한 예술이 비판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이는 모두 주관과 객관의 분리가 극단화한 형태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과학이란 그 시대, 그 사회에 있어 가급적(可及的) 진리(眞理)에 가까운 지식을 추출(抽出)해야 써 우리의 생활로 하여금 광명으로 유도(誘導)하는 곳에 그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중략 인용자) 두더지가치 산을 파고 들어가 금을 뜯어내다가 몇 십 명이 그 속에 없는 듯이 묻힙니다. 물속으로 쫓아가 군함을 깨트리고 광선으로 사람을 녹이고, 공중에서 염병을 뿌리고 참으로 근대과학은 놀라운 만치 발달되어 있습니다.¹⁸⁾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근대과학은 자연이라는 순수 객관을 지배한 결과, 놀랄 만큼 발달되었다. 그러나 자연 지배는 인간 지배를 낳고 인간 삶을 파괴하고 있다. 김유정은 자연을 지배하려는 동기가 과학자 개인의 취향과 자유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천착한다. 즉 과학자의 개인주의로 인해 과학과 사회의 전체 목표에 대한 성찰을 도외시하며 과학을 국가주의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여긴다. 근대과학은 과학의 가치

17) 김진석, 『니체는 왜 민주주의에 반대했는가』, 개마고원, 2009, 101-122쪽. 니체 사상을 변용하여 일제말 근대초극론을 수용한 소설로는 정비석의 〈잡어〉, 〈석별가〉, 〈삼대〉 등이 있다.

18) 김유정, 〈病床의 생각〉, 전신재 편, 『원본 김유정전집』, 강, 2007, 467쪽.

즉 인류사회와 소통하며 삶을 자유롭게 하는 목표를 상실한 채 지배와 전쟁의 파괴적 도구가 되었다. 김유정은 전쟁 국가의 도구적 이성으로 전략한 과학과 과학자에게 타자에 대한 '책임', '타자를 위한 존재'의 윤리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과학자 자신"의 "취미(趣味)의 자유(自由)"¹⁹⁾에 둘 경우, 타자의 고통과 얼굴을 망각한 채 지배 욕망에 매몰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김유정은 과학자들이 과학을 위한 과학에서 벗어나 타자 중심의 이타성을 내포한 과학의 가치를 추구하기를 촉구한다. 과학자들이 타인의 고통을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사회 윤리를 구축할 때, 비로소 과학도 공동체의 삶과 대중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²⁰⁾

〈病床의 생각〉에서는 대중의 현실을 투사해야 할 근대예술 역시 "근대 과학에 기초(基礎)를" 두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근대예술 역시 근대과학과 마찬가지로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어 온전한 주체성과 이타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괴망히도 치밀(緻密)한 묘사법(描寫法)으로 인간심리(人間心理)를 내공(內攻)하여, 이내 산 사람으로 하여금 유령(幽靈)을 만들어 놓는 걸로 그들의 자랑을 삼습니다. 이 유파의 태두(泰斗)로 지칭되어 있는 제임스 쫘이스의 『울리시스』를 한번 읽어보면 넉넉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에게 새롭다는 존호(尊號)를 붙이어 대우는 하였으나, 다시 뜯어보면 그는 고작 졸라의 부속품(附屬品)에 더 지나지 않음을 알 것입니다. 졸라의 걸작(傑作)인 『나나』는 우리를 재웠고, 그리고 쫘이스의 대표작(代表作), 『울리시스』는 우리로 하여금 하품을 연발

19) 김유정, 〈病床의 생각〉, 전신재 편, 『원본 김유정전집』, 강, 2007, 468쪽.

20) 레비나스는 나에 대한 관심보다는 타자에 대한 관심을 우선시하며 타자와의 연대가 나의 나됨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임을 주장했다. 레비나스는 서양 존재론의 전체주의적 성격 특히 '나'라는 동일자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전체성의 사유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독특한 자아와 타자 중심의 윤리학을 수립하게 된다.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30-37쪽.

(連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줄라와 같은 흉기(凶器)로 한 과오를 양면(兩面)에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²¹⁾

인용처럼 근대예술이 기교와 표현에 집중해서 내용 없는 객관과 내면 심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예술의 생명은 인류사회와 교감에서 나오는데 이것과 유리된 예술은 생명을 잃은 채 기교와 표현에 그쳐, “근대식으로 제작(制作)되어진 한 덩어리의 예술품(藝術品)”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김유정에게는 조이스의 〈울리시스〉보다는 봉건시대의 소산이던 〈홍길동전〉이 훨씬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것이다. 대중과 교감할 수 있는 예술이 “우리 인류사회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²²⁾ 이와 같이 근대과학과 근대예술은 모두 개인주의로 인해 과학과 예술의 가치가 훼손된 상태인 것이다. 객관에 대한 자연주의와, 이에 대한 반성으로 도달하게 된 주체의 정신주의는 대중의 경험과 감각을 생명의 전체성에서 멀어지게 한다. 예컨대 줄라는 바깥에서 지각되는 외적 세계를 묘사하고, 조이스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반성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성립되는 순수한 내적 세계를 심리학적으로 탐구해간다. 하지만 김유정이 보기에 이들의 예술은 대중적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치밀한 그 묘사가 얼뜬 보기에 주문의 명세서(明細書)나 혹은 심리학 강의(講義), 좀 대접하여 육법전서(六法全書)의 조문 해석(條文解釋)같은 지루한 그 문짜”²³⁾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성을 상실했다. 줄라의 자연주의는 객관세계를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주체성을 상실해 버리고, 조이스의 심리주의는 순수 내면세계를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대상성을 상실하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주관 객관의 분리

21) 김유정, 〈病床의 생각〉, 전신재 편, 『일본 김유정전집』, 강, 2007, 468쪽.

22) 김유정, 〈病床의 생각〉, 전신재 편, 『일본 김유정전집』, 강, 2007, 470쪽.

23) 김유정, 〈病床의 생각〉, 전신재 편, 『일본 김유정전집』, 강, 2007, 469쪽.

는 몸과 정신을 이원화한다. 정신과 분리된 몸은 내부 없는 외부가 되고, 몸과 분리된 정신(주체성)은 외부 없는 내부, 즉 무관심한 관망자가 되고 만다. 김유정 소설에서 들병이나 기생, 카페걸을 편견 없이 실존의 무게 그대로 그릴 수 있었고, 심리묘사를 피하고 행동의 양태와 침묵의 언어로 인물의 성격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몸과 정신을 이원화하지 않은 그의 감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순수객관과 순수주관의 분리는 이성의 주체를 특권화하고, 대중적 감각이나 현실성과 유리된 개인주의를 확산한다. 즉 과학자는 자연을 균질공간으로 만들어 지배하고, 예술가는 순수주관의 보는 자의 시선을 특권화시켜 순수객관을 소유한다. 이러한 근대 이성주의에 거리를 두고 김유정은 과학과 예술의 가치는 순수주관이나 순수객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철학에 기초한 사회윤리에서 발현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과학과 예술의 가치는 대중적 생활에 광명을 주는지, 우리 인류사회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지, 참다운 인생 탐구에 도움을 주는지를 판단 준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3. 반개인주의적 사회윤리와 ‘위대한 사랑’

김유정은 근대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원리를 ‘위대한 사랑’에서 찾고 있다. 위대한 사랑은 개인주의화된 사랑이나 종교적 사랑과 구별된다. 개인주의화된 사랑은 개인의 몸과 정신의 사적인 영역에 국한되기에 타자나 사회 전체에 대해 무관심하다. 김유정에게 ‘위대한 사랑’은 사회의 윤리이자 사회 원리이다. 위대한 사랑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있어, 좀 더 많은 대중(大衆)을 우의적으로 한 끈에 꿰 수 있으면 있을수록 거기에 좀 더 위대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²⁴⁾이다. 즉 사랑을 대

중에게 확산시키는 사회 원리이자 타자와 협력적 관계를 지향하는 사회 윤리인 것이다. 이것은 거시 세계와 일상 세계에서 억압적 지배를 없애고, 적자생존의 사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상호부조의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는 원리이다. 그러므로 김유정은 “오늘 우리의 최고이상(最高理想)은 그 위대한 사랑에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사랑에서 출발한 그 무엇이라는 막연한 개념”밖에 없다고 덧붙인다. 즉, ‘위대한 사랑’은 지금까지의 사회 제도와 윤리와는 다른, 현 사회에 대한 부정의 종합에서 나온 지향태인 것이다.

그런데 김유정의 위대한 사랑은 크로포트킨의 개인주의와 국가주의 비판과 겹쳐 읽을 때 이해될 수 있다. 크로포트킨이 개인주의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음은 앞서 살펴보았지만, 크로포트킨은 한발 더 나아가 국가주의와 개인주의가 쌍생아적 관계에 있음을 논구한다. 국가에 의한 공동체의 파괴가 개인주의를 만연시켰다는 것이다. 크로포트킨이 보기에 상호부조의 공동체의 원리가 잘 실현된 곳이 중세 도시였다. 중세 도시의 주된 목적은 자유, 자치 경영권 그리고 평화를 보증함에 있었다. 중세 도시에는 공동체의 자유와 평등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고, 평등주의 환경에서 자기 자신의 이성에 지침을 구하고 개성의 완전한 발달을 달성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평등의 원리는 정의가 된다. 타인을 자기와 평등한 자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남이 너에게 하여지고 싶지 않은 것을 너도 남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법칙에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 집권적인 근대국가가 촌락 공동체의 민회나 법정 그리고 독립적인 경영권을 빼앗고, 공유지의 토지를 몰수해 사유화했다. 길드는 자신들의 소유물과 자유를 강탈당했으며, 국가 안에 국가는 없다는 이유로 도시들은 주권을 빼앗겼다. 이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모

24) 김유정, 〈病床의 생각〉, 전신재 편, 『원본 김유정전집』, 강, 2007, 471쪽.

든 고리들을 국가의 공권력이 장악하게 되었다. 국가가 만들어낸 치명적인 정책과 전쟁 탓으로 과거에는 인구도 많고 풍요롭던 지역들이 하나같이 헐벗게 되었다. 산업과 예술 그리고 지식도 쇠락하게 되었지만, 정치, 교육, 과학 그리고 법과 같은 국가장치들은 국가의 중앙집권사상에 공헌하게 되었다.

국가가 사회 기능을 모두 병합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방종하고 편협한 개인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 국가에 대한 의무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은 서로에 대한 의무를 확실히 덜게 되었다. (중략 인용자)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곤궁함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법이나 과학, 종교 등 모든 방면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한 이론이 오늘날의 종교가 되어 버렸고 그 이론의 유효성을 의심하면 위험한 유평피아주의자가 되고 만다. 과학은 득의양양하게 만인에 대한 개개인의 투쟁이야말로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중심원리라고 외치고 있다. (중략 인용자) 사회가 유지되고 앞으로도 발전하기 위한 안전한 기반은 오직 개인주의뿐이라는 점이다.²⁵⁾

이렇듯 크로포트킨의 개인주의 비판은 국가주의 비판과 맞닿아 있다. 다양하게 존재하던 다수의 공동체 속에서 행해지던 자기 결정적 행동과 책임 의식이 국가주의로 일자화되면서 삶이 억압되고 황폐해졌다는 것이다. 김유정이 즐라, 조이스, 니체를 비판하며 개인주의 원리를 비판하는 것은 평등, 자유, 공동체 가치 원리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시대의 최고 이상이자 ‘위대한 사랑’을 추구한다.

이러한 ‘위대한 사랑’을 사회에 실현하려는 김유정의 사회 윤리는 등단 이전에 습작해 두었던 그의 소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심청〉은 탈고 날짜가 제일 빠른, 즉 최초의 소설이라 할 수 있다.²⁶⁾ 심청은 마음보

25) P.A. 크로포트킨, 『현대과학과 아나키즘: 아나키즘의 도덕』, 이을규 역, 창문각, 1973, 272-273쪽.

26) 〈심청〉은 1932년 6월 15일에 탈고되었지만, 1936년 1월 『중앙』에 발표되었다.

라는 의미인데, 표면상으로는 주인공 '나'의 성격적 뒤틀림을 표현하지만 이면적으로는 당대 사회의 마음보(원리, 윤리)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비판의식을 담고 있다. 경성 거리는 “대도시를 건설한다는 명색으로 웅장한 건축이 날로 늘어가고 한편에서는 낡은 단청집은 수리쫓아 허락하지 않는다. 서울의 면목을 위하여 얼른 개과천선하고 훌륭한 양옥이 되라”²⁷⁾는 분위기 속에 상점마다 “객들에게 미관을 주기 위하여 서루 시새워 별의별짓을 다해가며 어떠한 노력도 물질도 아끼지 않는다. ‘나’는 근대적 도시로 변모해 가는 경성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골치덩이가 “기름때가 짜르르한 흰 누데기”의 거지라고 여긴다.

얼굴은 뇌란 게 말라빠진 노루 가죽이 되고 화루전에 눈 녹듯 개개풀린 눈매를 보니 필야 신병이 있는데다가 얼마 굶기까지 하였으리라. 금시로 운명하는 듯싶었다. 거기다 네 살쯤 된 어린 거지는 시르죽은 고양이처럼, 큰놈의 무릎우로 기어오르며, 울 기운 좇아 없는지 입만 병긋병긋, 그리고 낮을 째프리며 튀정을 부린다. 꼴을 봐한즉 아마 시골서 올라온 지도 불과 며칠 못 되는 모양이다.²⁸⁾

상경한 지 며칠 안 된 열댓 살 정도의 거지, 즉 ‘이 벌레들’을 치워주기를 소망할 때, 순사가 된 동창이 나타난다. 장래에 톨스토이나 칸트가 되고 싶다고 “떠들며 껍적이든” 동창은 순사 “나리로 출세”하여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순사 동창은 ‘나’의 소망대로 거지들을 향해 “이 자식! 골목 안에 백여 있으라니깐 왜 또 나왔니, 기름강아지같이 뺨질뺨질한 망할 자식!”²⁹⁾이라고 소리치고 발로 차서 일 분도 안 돼 쫓아버린다. 이처럼 <심청>은 표면적으로는 근대적 도시로 변모한 경성을 욕망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경쟁에서 도태되어 효용가치를 잃은 거지와 같은 사람

27) 김유정, <심청>, 전신재 편, 『원본 김유정전집』, 강, 2007, 181쪽.

28) 김유정, <심청>, 전신재 편, 『원본 김유정전집』, 강, 2007, 182쪽.

29) 김유정, <심청>, 전신재 편, 『원본 김유정전집』, 강, 2007, 183쪽.

들이 대도시에서 추방되는 냉정한 사회윤리를 비판하고 있다.

〈생의 伴侶〉 역시 〈심청〉처럼 냉정한 사회윤리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묘파하고 있다. 이 소설은 1인칭 시점으로 실존적 위기를 벗어나려는 고투를 그린 작품으로, 친구 명렬의 ‘생의 기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기실은 작가를 지시하는 서사들을 친구 명렬의 이야기로 극화하여 그려낸 것이다. 친구는 폐쇄된 실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작’에 가담하려고 했다고 고백한다. 친구 명렬이 마작단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은 “자기 일신을 위하여 열사람의 가족이 희생을 하라는 무지한 폭군”인 형의 일상적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이유도 있었겠지만³⁰⁾ 민족주의 독립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하여 “씩씩하게 먹고 씩씩하게 일”하자는 사회의식의 발로인 것도 부정할 수 없다.³¹⁾ 부연하자면 일상세계의 가독(형)의 지배뿐만 아니라 식민지 자본주의라는 거대 권력의 지배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마작’을 생각해낸 것이다.

장남인 형의 폭력과 억압으로 명렬은 누나에 얽혀살게 된다. 누나 역시 젊은 과부가 되어 친정에 오지만 장남의 폭력에 견지지 못하고 거리로 내쫓겨지자, 경무과분실 양복부에 여직공으로 다니며 동생과 함께 힘겹게 생계를 꾸려나간다.

뒤를 보러갔다 늦을 적이 있다. 감독은 수상히 여기고 부냥게 쫓아온다. 그리고
잡은참 문을 열어제친뒤 자로다 머리를 따리며

“알갱이를 세고 있는 거야?”

하고 또 호령이었다.

그러나 그는 치바치는 설움과 분노를 꺾지 않을 수 없다. 감독에게 말대꾸하는 것은 공장을 고만두는 사람의 일이었다.

또는 남자들 틈에서 일을 하는지라, 남녀관계로 시달리는 일이 적지 않았다.

30) 김유정, 〈생의 伴侶〉, 전신재 편, 『원본 김유정전집』, 강, 2007, 258쪽.

31) 김유정, 〈생의 伴侶〉, 전신재 편, 『원본 김유정전집』, 강, 2007, 257쪽.

어둑어둑 근드리는 놈도 있고 맞우대고 눈을 흘기는 놈도 있었다. 혹은 빈정거리는 놈에 씹을 거는 놈까지 있었다.³²⁾

인용처럼 누나는 일상의 폭력에 시달리지만 치받치는 설움과 분노를 꺾꺾 참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누나가 자신의 분노를 드러낼 경우 “공장을 고만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분노의 축적은 공장 생활 5년 만에 누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성격도 외모도 변하게 하였다. 누나는 일터에서 풀지 못한 분노를 동생 명렬에게 쏟아 붓는다. 명렬은 자신이 “그 밥을 얻어먹고 그의 분풀이로 사용되는 한 노동자”라고 생각하며 누나의 폭력을 견딜 뿐이다.³³⁾ 누나가 받은 사회적 억압이 돈을 벌지 못하는 즉 상대적으로 효용가치가 적은 동생에게로 전이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의 伴侶〉는 자본주의라는 거대 권력의 억압적인 지배가 일상의 미시 세계를 재구조화하고 억압을 연쇄적으로 전이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묘사하고 있다. 사회 가족, 가족 가족 간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연쇄작용은 어떤 형태로든 지배가 있는 곳에는 자유가 존재할 수 없음을 폭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 윤리가 타락하면 일상의 고통은 권력의 주변부에서 더 폭력적 양태를 띤다. 식민지국가가 근대화라는 명목으로 지주제를 강화하면서, 그로 인한 일상의 고통은 농촌에서 더 파괴적으로 드러난다. 지주제는 수출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에서 생산된 쌀을 일본으로 보내기 위한 식민 정책 중 하나였다. 식민국가의 산업자본주의 발달을 위해 일본 농민을 노동자로 전환시켜야 했고, 부족한 쌀을 식민지 조선에서 유입해 와야 했던 것이다. 즉 지주제는 식민국가의 산업자본주의 발달을 위해 고안된 근대적 착취 제도였고, 지주제가 강화되는 만큼 조선

32) 김유정, 〈생의 伴侶〉, 전신재 편, 『원본 김유정전집』, 강, 2007, 261-262쪽.

33) 김유정, 〈생의 伴侶〉, 전신재 편, 『원본 김유정전집』, 강, 2007, 262쪽.

의 소작농의 궁핍화는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지주제로 인한 일상의 고통의 연쇄가 잘 드러나는 소설이 〈소낙비〉이다.

그런 모욕과 수치는 난생 처음 당하는 봉변으로 지랄 중에도 땀을 지랄이었으나 성공은 성공이었다. 복을 받으려면 반듯이 고생이 따르는 법이니 이까짓거야 골백변 당한대도 남편에게 매나 안 맞고 의조케 살 수만 있다면 그는 사양치 안 할 것이다. 리주사를 하늘카티 은인카티 여겼다. 남편에게 부쳐 먹을 농토를 줄 테니 자기의 첩이 되라는 그 말도 죄송하였으나 더욱이 돈 이원을 줄게니 내일 이맘때 쇠돌네 집으로 년짓이 만나자는 그 말은 무엇보다도 고마웠고 벽찬 짐이나 풀은 듯 훌가분하였다. (중략 인용자) 서울로 올라가 안해는 안잠을 재우고 자기는 노동을 하고 돌이서 다구지게 벌으면 안락한 생활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산 구석에서 굶어죽을 맛이야 업섯다.³⁴⁾

인용처럼 식민화와 근대화로 몰락한 농촌에서 더 이상 생존을 영위할 수 없는 농민들은 ‘굶어 죽을 맛’밖에 남지 않은 참혹한 상태로 전락한다. 농민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도시 빈민으로 유입되거나 죽음이나 도적질, 성매매 등 반사회적 선택지밖에 없다. 그러나 김유정의 소설은 이들이 처한 비참을 과잉하여 묘사하지 않고 담담하면서도 가볍게 그려내고 있다. 이는 비참에 대한 무감각이 아니라, 비참한 처지와 고통이 사회 변동에서 기인한 것이었고, 그로 인한 어리석은 선택과 행동 역시 그들 탓이 아니라는 연민과 공감에서 나온다. 이러한 서사전략을 통해, 농민의 비참한 처지는 그들의 개인적 무능함이나 불성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식민지국가에 의해 주도된 사회적 변동에서 강요된 것임을 드러낸다.

한편 김유정 소설에서 조직화된 전위가 등장하지 않고 주변부의 인물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삼은 것은 아래로부터의 대중적인 사회혁명을 중

34) 김유정, 〈소낙비〉, 전신재 편, 『원본 김유정전집』, 강, 2007, 46-47쪽.

시하는 아나키즘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³⁵⁾ 이성보다는 감성, 문명보다는 원시성, 소수의 전위보다는 대중을 강조한 아나키즘과 같이, 김유정 소설 역시 조직화되고 전위화된 노동계급이 아니라 근대 세계의 주변부에서 수탈당하고 있지만 문명화되지 않는 야생적인 힘을 간직하고 있는 주변부의 하층 대중에게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는 김유정의 〈문화문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계역사상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의 문화가 훌륭하다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김유정은 “아족은 없었는 듯합니다. 허나 앞으로 장차 露西亞에 우리 人類를 爲하여 크게 貢獻될 바 훌륭한 文化가 建設되리라 생각합니다.”³⁶⁾라고 대답하고 있다. 서구의 문명화된 프롤레타리아 대신에 원시적인 활력과 반발을 지닌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듯이, 김유정은 하층 대중에게서 지배 권력을 전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힘과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과학적 사회주의로 무장한 전위가 아니라 운동에 참여한 대중의 집단적인 활력과 자율적인 본능을 가진 대중의 직접행동을 통해 새로운 사회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잘 드러난 소설이 〈만무방〉이다. 〈만무방〉은 소유를 축적이 불가능한 점유로 대체하고 노동의 상호

35) 마르크스는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다고 보았기에 계급의식을 가진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혁명의 주체로 본 반면에 룬펜프롤레타리아 계급과 농민은 미개한 야만인이자 반혁명적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입장에 대해 아나키스트인 바쿠닌의 견해는 달랐다. 바쿠닌은 부르주아 문명의 타락한 영향력에 가장 적게 노출된 농민과 룬펜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원초적인 활력과 반발을 위한 본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바쿠닌은 발달된 문명에서 타락을 보았고 낙후된 국가에서는 생명력을 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바쿠닌은 유럽대륙의 혁명의 가능성을 풍요롭고 안정된 서유럽 국가보다는 더 원시적이고 산업화되지 않았던 슬라브에서 보았다. 또한 바쿠닌은 혁명은 이성적 각성에 의한 조직적인 행동보다는 파리 코뮌과 같은 생존환경과 감정에 기반한 자연발생적인 행동으로 수행된다고 주장한다. E.H. 카, 『미하일 바쿠닌』, 이태규 역, 이매진, 2012, 246-260쪽.

36) 김유정, 〈문화문답〉, 전신재 편, 『일본 김유정전집』, 강, 2007, 480쪽.

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체계를 왜 구상해야 하는지를 잘 드러낸다. 식민지국가가 주도한 근대적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 욕망은 자연을 축적의 대상으로 타락시키고 협력적이었던 농촌을 해체했다. 〈만무방〉에서는 “삼십 여 년 전에는 추수의 기쁨으로 넘치던 농촌”이었으나, 근대적 자본주의 체제가 자리 잡기 시작한 지금은 “살기만 띠어오”³⁷⁾는 곳으로 타락하였다고 응철은 주장한다. 농촌을 타락시키고 공동체를 해체한 자본주의적 소유의 부당성을 문제시하는 것이다. 이 소설은 토지를 제공한 지주와 노동력을 제공한 모범농민 응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통해 이윤 증대의 권리와 생존의 권리가 대립할 경우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정의를 묻는다. 지주는 벼 수확보다는 한번 버릇을 잘못해 놓으면 여느 작인까지 행실을 버릴까 염려하기 때문에, 응오의 생존과 노동의 권리를 외면해 버린다. 응오는 타작을 하지 않고 자신이 지은 농작물을 몰래 훔치는 불가피한 선택을 한다. 노동력을 제공한 응오가 “내 것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³⁸⁾라는 말과, “허나 내걸 내가 훔쳐야할 그 운명은 알곳”³⁹⁾다는 응철의 생각은 소유와 분배의 정의와 사회윤리를 심문하는 것이다. 근대가 공동체의 사회적 소유를 개인의 사적 소유로 바꾸어놓았으며, 개인주의가 공동체를 해체하고 농촌을 타락시켰음을 심문하는 것이다. 이러한 심문은 사회적 부의 생산은 개인의 독자적인 공헌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대중의 땀과 노력이 만든 것이므로 “모든 것은 모두에게 속한다.”라는 반개인주의 사상에 근거한 것이다.³⁹⁾

응철은 재작년 가을 산중에서 일어난 ‘농군이 농군을 죽인 사건’을 떠올린다. 기껏 동전 네 닢에 수수 일곱 되를 훔치고 “계다 흔적이 탈로

37) 김유정, 〈만무방〉, 전신재 편, 『원본 김유정전집』, 강, 2007, 111쪽.

38) 김유정, 〈만무방〉, 전신재 편, 『원본 김유정전집』, 강, 2007, 120쪽.

39) P.A. 크로포트킨, 『빵의 쟁취』, 여연·강도은 역, 행성B있세, 2016, 53쪽.

날가 하여 낮으로 그 얼굴의 껍질을 벗기고 조깃대강이 이기듯 끔찍하게 남기고 조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응칠은 “흉악한 자식. 그 잘량한 돈 사전에 나 가트면 가여워 덧돈을 주고라도 왓스리라.”⁴⁰⁾라며 농촌의 사회적 타락을 비판한다. 〈만무방〉을 이끌어가는 응칠이라는 인물은 소유에 저항하는 반자본주의적인 성격을 띠지만, 카프문학에서처럼 각성되거나 조직된 전위적 인물은 아니다.⁴¹⁾ 응칠은 이윤과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단독자이지만, 타자로부터 지적 우월자로 인정받거나 대중을 복종시킬 만한 도덕적 성품을 지닌 인물이 아닌 것이다. 다만 응칠은 정의롭지 못한 사회제도를 위반하는 체제이탈자로, 그의 성격에는 농민을 몰락하게 만드는 사회구조에 대한 야생적 저항성이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노동이 즐거움으로 되고 평등하게 보상 받는 사회로 변화되는 될 때 응칠과 응오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처럼 〈만무방〉은 소유와 지배 욕망이 평등, 자유, 공동체 가치 원리와 충돌한다고 확신한다.

훼손된 공동체의 원형을 개인주의가 만연된 현실에서가 아니라 산골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이 수필 〈五月의 산골작이〉이다. 이 수필에서 김유정은 자연이 지배 대상이 되고 교환가치로만 인식되기 전의 세계, 자연 내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세계가 공동체가 살아 있는 세계라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40) 김유정, 〈만무방〉, 전신재 편, 『원본 김유정전집』, 강, 2007, 111쪽.

41) 크로포트킨은 러시아 사회주의혁명이 볼셰비키의 당 중심으로 권력화되면 소수에 의한 다수의 지배가 재현되어 자율과 자유를 상실한 독재국가가 된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국가의 통제보다는 다양한 층위의 연대와 연합의 공동체를 통해 국가의 기능을 대체해나가는 사회혁명을 꿈꾼다. 폴 에브리치, 『아나키스트의 초상』, 하승우 역, 갈무리, 2004, 118-123쪽.

산골에는 草木의 내음새까지도 特殊하다. 더욱이 새로 뜬 잎이 한창 퍼드러질 臨時하여 바람에 풍기는 그 香臭는 一筆로 形容하기 어렵다. 말하자면 개운한 그 리고 졸음을 請하는듯한 그런 나쁜한 香氣다. 一種의 煽情的 魅力을 느끼게 하는 짙은 香氣다. (중략 인용자) 소들도 洗練이 되어 主人이 부르는 그 노래를 잘 理解하고 있다. 그래서 노래대로 左右로 方向을 變하기도 하고 도는 步調의 速度를 느끼고 주리고 이렇게 順從한다.

면발치에서 소를 몰며 처량히 부르는 그 노래도 좋다.

이것이 모두 산골이 홀로 가질 수 있는 聖스러운 音樂이다.(중략 인용자) 산 한 중턱에 번듯이 누어 마을의 이런 生活을 내려다보면 마치 그림을 보는 듯하다. 물론 理智없는 無識한 生活이다. 마는 좀더 有心히 觀察한다면 理智없는 생활이 아니고는 맛볼 수 없을만한 그런 純潔한 情緒를 느끼게 된다.⁴²⁾

이와 같이 김유정은 오월 농촌을 향기(축각)/노래(청각)/그림(시각) 등의 감각으로 기억한다. 더구나 '理智없는 無識한 生活'이지만, 오히려 '理智없는 생활이 아니고는 맛볼 수 없을만한 그런 純潔한 情緒'의 세계 라며 근대적 이성주의를 절대적인 선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고 분리된 자연을 욕망의 객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협력의 공동체적 가치를 품고 있던 농촌을 지향한다. "그들이 모이어서 일하는 것을 보아도 펍 友誼的이요 따라 愉快한 勞動을 하는 것이다.", "나도 故鄕에 있을 때 갈꾼에게 여러 번 얻어먹었다. 그 막걸리의 맛도 좋거니와 翁계중계 모이어서 한家族같이 주고받는 그 氣分만도 깨끗하다. 산골이 아니면 보기 어려운 귀여운 團樂이다."⁴³⁾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 김유정 문학에 나타난 농촌은 욕망주체로서 서로 경쟁하고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가 연대와 협력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간직한 곳이다. 김유정에게 농촌은 흘러간 과거의 노스텔지어적인 시공간이 아니라 공기, 사물, 사람이 서로 어우러진 가치의 장소로서, 선취해야 하는 미래의 원

42) 김유정, 〈五月의 산골작이〉, 전신재 편, 『원본 김유정전집』, 강, 2007, 426-427쪽.

43) 김유정, 〈五月의 산골작이〉, 전신재 편, 『원본 김유정전집』, 강, 2007, 424쪽.

형인 것이다.

이처럼 개인주의, 우월성, 경쟁, 지배 등 근대적 요소에 거리를 둔 김유정은 집단주의, 평등, 협력, 사랑 등의 가치에서 새로운 사회 윤리와 원리를 구하고자 한다. 안희남이 김유정을 회고하며 쓴 소설 〈겸하-김유정전〉에서도, 김유정이 인류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힘을, 지배와 경쟁의 결과로 파생한 문명에서가 아니라 자유를 확대시키는 사랑에서 찾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김유정은 “인류(人類)의 역사(歷史)는 투쟁(鬪爭)의 기록이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사랑의 투쟁의 기록이”⁴⁴⁾라고 재정의한다. 인류의 역사 발전은 사랑과 자유를 확대하는 사회로의 발전이라는 인식이 전제된 것이다. 그러므로 김유정에게 사랑은 동정심 같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성이라는 연대의식이며, 개인 간의 감정적 교류가 아닌 타인의 고통을 공유하는 타자의 철학인 것이다. 우월성, 경쟁, 지배에 기반한 개인주의와 국가주의를 극복하고 사회화된 개인주의를 토대로 대중의 자율성과 연대, 협력에 기반한 사회 윤리를 추구하며, 하층 대중의 평범성에 내재한 타자의 철학을 소설 미학으로 만들어내었다. 이를 통해 김유정은 근대 이성이 구축한 지배와 굴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 원리와 윤리를 정립하고자 했던 것이다.

4. 결론

이상에서 김유정의 사회 윤리가 소설 미학으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김유정 소설은 아나키즘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를 결합한 사회적 개인주의를 추구했다. 김유정 소설의 대중성은 아나키즘의 사상과 원리와 상통함을 〈따라지〉, 〈病床의 생

44) 안희남, 〈겸하-김유정전〉, 『문장』, 1939.10, 56쪽.

각), 〈심청〉, 〈생의 伴侶〉, 〈소낙비〉, 〈만무방〉, 〈五月의 산골작이〉를 통해 살펴보았다. 김유정은 순수주관과 순수객체를 분리하는 이성 중심주의에 거리를 두고, 보고 보이는 관계론적 시선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분석적 사고 대신에 침묵의 언어로서 소외된 자의 평범한 진실에 깊이와 다양성을 부여한다. 그는 주객분리의 산물인 개인주의를 비판한다. 개인주의는 우월론적 특권의식과 경쟁의 원리를 통해 자연 지배와 사회 지배의 권력을 생성하여 공동체를 파괴하고 정의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하층민들의 실존과 대중의 평범함 속에서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였다.

김유정은 크로포트킨의 이론에 공감하여 경쟁이 아닌 협력을 원리로 삼는 공동체를 소망했다. ‘위대한 사랑’은 근대의 사회윤리에 비판적 거리를 둔다. ‘위대한 사랑’은 경쟁과 지배 대신에 사랑과 자유를 확대하는 원리를 실현하는 사회적인 행동이다. 김유정의 ‘위대한 사랑’은 세계에의 참여를 통해 시간의 우연성 속에서 타인들과의 관계들을 서로 결합시키는, 가능성의 무한성, 열림의 무한성의 세계이다. 그러므로 김유정에게 ‘위대한 사랑’은 소설 미학의 토대가 되며, 개인 간의 감정적 교류가 아닌 타인의 고통을 공유하는 타자의 철학의 실천적 지침이 된다. 따라서 김유정은 하층 대중의 감정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타자의 철학과 ‘위대한 사랑’을 소설 미학으로 구축함으로써, 소설을 통해 근대 이성이 구축한 지배와 굴종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김유정, 전신재 편, 『원본 김유정전집』, 강, 2007.

2. 논문과 단행본

- 권채린, 『한국 근대문학의 자연 표상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10.
- 박현호, 『한국인의 애독 소설 향토적 서정소설의 미학』, 책세상, 2001.
- 방민호, 「김유정, 이상, 크로포트킨」, 『한국현대문학연구』 44집, 한국현대문학회, 2014, 281-317쪽.
- 서동수, 「김유정 문학의 유토피아 공동체와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 『스토리엔 이미지텔링』 9호, 건국대학교 스토리엔이미지텔링연구소, 2015, 101-125쪽.
-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이학사, 2004.
- 하정일, 「한국문학의 로컬리티와 지정학적 상상력: 지역, 내부 디아스포라, 사회주의적 상상력-김유정 문학에 관한 세 개의 단상(斷想)」, 『민족문학사연구』 47권,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84-106쪽.
- 홍기돈, 「김유정 소설의 아나키즘 면모 연구-원시적 인물 유형과 들병이 등장 작품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70집, 중앙어문학회, 2017, 331-361쪽.
- 가라타니 고진,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박유하 역, 민음사, 1997.
- 미우라 노부타카 외, 『언어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이연숙 역, 돌베개, 2005.
- B. 스피노자, 『에티카』, 황태연 역, 도서출판 피앤비, 2011.
- E.H. 카, 『미하일 바쿠닌』, 이태규 역, 이매진, 2012.
- P.A. 크로포트킨, 『만물은 서로 돕는다』, 김영범 역, 르네상스, 2005.
- _____, 『현대과학과 아나키즘: 아나키즘의 도덕』, 이을규 역, 창문각, 1973.
- 모리스 메틀로 폰티, 『간접적인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 김화자 역, 책세상, 2014.
- _____,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 역, 문학과지성사, 2002.
- 폴 에브리치 조, 『아나키스트 초상』, 하승우 역, 갈무리, 2004.

Abstract

A Study of the Anti-Individualist Aesthetics of Kim Yu-jung's Novels

Chin, Young-Bok(Yonsei University)

This paper clarif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esthetics and anti-individualism of Kim Yu-jung's novels. The novels deny rationality, which separates pure subjects and pure objects. Instead, his stories proceed with a relational perspective. Kim Yu-jung's novels carry the sense of otherness, which means that the existence of 'I' comes from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the sufferings of others are embraced as 'my' pain, in other words, one's own pain.

Individualism, the core principle of the modern capitalism, dominates nature and society based on the fundamentals of competition. Such individualism destroys communal cooperation. Kim Yu-jung accepts Kropotkin's theory, and hopes communities to establish upon cooperation rather than upon competition. Kim Yu-jung claims 'great love' as the fundamental principle for community. 'Great love' is a principle that denies competition and domination, and expands love and freedom within a society. Kim Yu-jung's novels show the process of seeking and exploring this 'great love'.

This paper analyzes and confirms that the popularity of Kim Yu-jung's novels have relevance to anarchism, which is a combination of socialism and liberalism. Through the analysis, it is shown that Kim Yu-jung's novels deny capitalistic individualism and socialistic totalitarianism.

(Key Words: Kim Yu-jung, social principles, popularity, Kropotkin, great love, relational perspective, anti-individualism, community)

논문투고일 : 2017년 10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7년 11월 3일

수정완료일 : 2017년 11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7년 11월 15일